



##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적용 양계 1만수 이하만 적용방침

그간 축산업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범 업계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계속 미루어져 오다가 이번에 정부가 7월 중 임시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적용키로 함에 따라 소규모로 분류되는 축산농가 76만여호에 연간 6백5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영세율 적용 대상 농가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농가로 닭 1만수, 한우 30두, 젓소 20두, 돼지 200두 이하로 알려지고 있는데 양계의 경우 통계상 수혜수수는 대략 15%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어 부가세 영세율 적용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대상규모에 대하여는 국제경쟁력제고 차원에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 육류중 유해성물질 허용기준 초과시 유통금지 조치

닭고기 '96년 1월 1일부터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별로 잔류 우려가 있는 유해성물질에 대한 집중검사를 실시,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유통이 금지된다.

특히 닭고기의 경우 '96년 1월 1일부터 허용기준이 초과되면 축산물 위생처리법에 의해 식육으로서의 유통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국내산 육류의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공중보건향상 도모와 국내산 육류에 대한 신뢰도 및 품질경쟁력제고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코자 마련되었다. 또한 내년 7월부터는 종계장에 대해서는 연2회 정기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위생 및 방역관리가 우수한 농장에 대해서는 정부인증제도를 마련, 일반농장과 차별화를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물질 잔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료첨가제 및 동물약품 남용을 막기 위해 사료업체와 동물약품업체에 대한 규정도 강화하여 동물약품별 휴약기간 등 사용제한 기준을 제정해 고시할 방침이다.

## '95년도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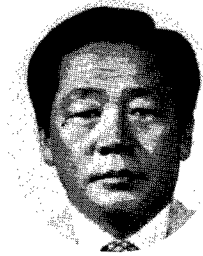
정부는 금년도 축종별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를 최종 확정, 닭, 한우, 젓소, 돼지 등 7만6천1백61농가와 단체에 3천5백16억2천1백여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양계산업 경쟁력제고의 경우 지원대상자는 전업농가 4백46농가, 종계업 11농가, 부화업 3농가, 계열화참여농가 60농가, 영농법인협업체 4개소, 생산자단체 2개소 등 모두 5백26농가이다.

대상자별 지원액은 전업농가 4백17억7천4백5만4천원, 종계업 3억6천90만원, 계열농가 55억1백34만6천원, 영농법인협업체 25억7천80만원, 생산자단체 11억1천10만원 등 모두 5백29억원이 지원된다.

## 수의과학연구소

박근식박사 정년퇴임



△박근식 박사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에 근무해오며 동연구소 소장직까지 역임한 바 있는 박근식(현 축산기자재협회장)박사가 지난 28일 동연구소에서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 본회 최준구회장은 40여년간 오직 수의과학연구사업에 헌신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공헌하였고, 특히 본회 발전을 위해 부회장, 자문위원, 닭검정위원, 종계수급 조절위원, 방역대책위원, 월간양계 편집위원을 맡아 눈부신 업적을 쌓았을 뿐 아니라 한국가

금학회 회장 등의 중책을 맡아 우리나라 양계산업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감사패와 행운의 열쇠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 한국가금학회

하계심포지움 개최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성욱)가 지난 23일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관련인사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금학의 최근 연구동향”이란 주제로 하계심포지움을 개최했다.

'95년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와 연계해 개최된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제1주제로 가금영양학의 연구에서 강창원 건국대학교수의 “산란계에 있어서 사료내 비타민 A와 E의 계란내 이행에 관한 연구”, 이영수 축협사료연구소 과장의 “자연란 생산을 위한 사료설계”, 김규일 제주대학교 교수의 “사료중 항생제, 생균제, Yucca extract가 닭의 장내 요소분해 효소 활성과 암모니아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각각 발표가 있었고 제2주제로 가금생리와 육종의 최근 연구동향에서 김정우 단국대학교 교수의 “닭의 항병력과 성장을 증진을 위한 면역학적 영양지표”, 여정수 영남대학교 교수의

“DNA 지문을 이용한 가금의 육종”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발표가 있었다.

## 1995년 축산분야 종합학술대회 개최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6월 23~24일 양일간에 걸쳐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서 “한국축산의 반세기” 심포지움과 “종합학술대회”를 축산관련인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종합학술대회에서는 23일 9시부터 가금학회를 비롯한 각 학회별로 심포지움 및 총회, 이사회 등이 열렸으며 오후 2시부터는 “한국축산반세기”를 주제로 심포지움이 열렸는데 축산행정조직의 변천과 관련기관의 실상을 주제로 황영구(한국종축개량협회)고문이, 농업교육의 변천 및 축산학 연구업적을 주제로 송계원(서울대 명예교수)박사가, 광복 50주년 한국축산 발전사를 주제로 오봉국(대한양계협회 고문)박사가, 각각 발표에 나섰다. 이날 저녁에는 충남대 총장 초청 리셉션이 농과대학 정원에서 열렸다.

다음날에는 육종, 번식 등 분야별 논문 발표가 진행됐으며 포스터 발표에서는 연구업적이

담긴 내용 및 사진을 발표대에 부착하여 참석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번에 발표된 총 논문수는 구두발표 98편, 포스터 발표 95편으로 총 193편이 발표되었다.

## 농림수산물 표준코드 제정

농림수산부는 농림수산물정보화 추진에 따른 각종 자료관리의 효율화 및 일원화를 도모하고 관련 기관간 정보의 공유에 따른 이용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농림수산물의 표준코드를 제정했다.

32 01 07 00	닭고기	
32 01 07 01		통닭
32 01 07 02		가슴고기
32 01 07 03		다리고기
32 01 07 04		날개
32 01 07 99		기타
32 02 00 00		계란
32 02 01 00		
32 02 01 01	특란	
32 02 01 02	대란	
32 02 01 03	중란	
32 02 01 04	소란	
32 02 01 05	경란	
32 02 01 99	기타	

기본 코드 작성 기준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상태 등 10단위로 되어있다.

##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세미나

(사)한국축산기자재협회(회장 박근식)는 오는 7월 8일 축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축산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의 의의, 목적 및 문제점을 토론할 예정이다.

### 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

축산시설 근대화를 위한 심포지엄

한국축산시설학회(회장 정태영)는 날로 심화되어가는 인력난에 대처하고 사육환경의 최적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방안을 모색키 위해 오는 7월 12일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이란 주제로 농림수산부 김남철 축산경영과장이, 양계산업의 시설자동화 방안이란 주제로 쌍용농장 장대석 사장이 발표하는 등 각 축종별로 시설합리화에 대한 방안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 농어민연금 195만여명 가입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농어민연금이 5월말 현재 1백95만1천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의하면 5월말까지 연금가입신청을 접수한 결과 2백49만5천명의 농어민들이 농어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중 이미 54만4천명이 국민연금 등에 가입돼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백95만1천명이 농어민 연금에 가입됐다.

### 축협중앙회

임시총회 개최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22일 전국 회원,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층 강당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정관 및 임원선거 규정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따라 1명이던 부회장이 2명으로, 비상임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상임이사제도는 폐지되며 종전의 상임이사는 임기 2년의 집행간부로 전환되고 명칭도 상무로 바꾸게 된다.

축협은 오는 7월 20일 제2회 임시총회를 열어 비상임이사 선출 및 부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 대한수의사회

제1회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 개최

대한수의사회(회장 이길재)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따라 가축위생 및 공중보건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오는 7월 7일 한국마사회 강당에서 수의정책개발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서울대학교 신광순교수의 “축산식품의 안정성 확보와 국민건강”, 국립동물검역소 김옥경소장의 “GATT, UR의 SPS 협정과 대응방안”, 수의과학연구소 박종명과장의 “CODEX 규격 유해물질 대책”, 농림수산부 배상호과장의 “수의행정 및 연구기능의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각각 열릴 계획인데 종합토론에 이어 리셉션도 가질 예정이다.